

그러게요...

어때?
역시 늘리는 게
좋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수고했어!
지금 가는
거야?

아,
수고했어.

왜 또
에미선배님한테
왔어?

너의 교실에서
하는 게 더
진행이 빠르지
않아?

숙제...?


네.
근데, 가기 전에
숙제를 하고
갈까 해서.



아니 아니,
숙제는 혼자
해야지.

아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두 분께 협조
부탁드리려고요.

맞아.
몰라서 힘들어도
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데?



어리광부리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같이
와주실래요?



.....

.....
...

그래요,
아쉽네요.

히푸노코드
「0007」
준 최면 노예
모드.



으응, 알았어.

일어나주세요.

드르륵

척

알았어.

척

당연하지.

그대로
경례
해줄래요?





보여?



이렇게?


치마를 들고
팬티를 보여
줄래요?



뭔가
이상한
일 하고
있어?

...?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둘 다,
왜 나의 말에
순종하나요?



그럼.


으응,
당연하지.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창문에서
뛰어내려..."라고
부탁하면 뛰어내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응,
알았어.

대단하네요...
에미선배님은 상태를,
사카키선배님은 상황을
각각 무의식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저희 둘은
방과 후의 교실에서
후 최면 명령에 따라
후배에게 팬티를
보여주면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지시자와 「M1」
...마스터에게
무례한 행동도
할 수 없어.

명령에는
즉석에서 따르지만,
받은 명령 그 자체나,
그 내용에도 위화감을
가질 수 없어.

지금은 준
최면 노예 모드.
자신이 최면
세뇌당하고 있는
인식은 없고 이상한
상황에
위화감을 느낄
수는 있어.




.....

하...하...

.....

좋아.
그러면,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의 기억을
지워주세요.



...
...네.

...
...네.

그리고, 나에 대해선
인식할 수 없지만,
말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
주세요.

...엇?

ooo

ooo

...어머?

그럼, 시작.

팡



아...
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카카카



ooo

아, 배구부의
다음 달
트레이닝
메뉴예요.

아, 맞아 맞아.
어떡하지.
달리기 도는
횟수를 늘릴까?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주세요.

그러게요.
불만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역시
기초체력이
중요하죠.



네.
...응...응.

그렇지.
기초를
단련해놓으면
손해는 없지.
...응.

부릉부릉

덜덜덜덜

서로
「태양권」을
하세요.

아...

그리고 보니
알고 있나요?
IQ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부들부들

떨렁떨렁



칙!

태양권!

...네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요.

...어?
그래?

칙!

허벅지를
벌리고
그대로
방뇨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걸거나
달리기를
하면

뇌의
용량이 5%
증가한다고
들었어요.

음~ 그렇구나.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이제
입시야~

아니 아니,
에미선배님은
충분히 성적이
좋잖아요!

취역

취역



나 같은 건
전혀야.

네에?
그래요?

위에는
그 위가
있는 법.

쭈르르르...

쭈르르르...